

“남북 화해 기여, 자비실천 큰 교훈”



■노무현 대통령 조의 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원직에 돌아 오기 전인 노무현 대통령(사진)이 9월 11일 조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노 대통령은 조의메시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의 입직을 애도한다”며 “대종사께서는 한국 불교의 선맥을 정립하고 정법 수호에 앞장서 오셨다”며 원직을 애도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 화해와 협력에도 크게 기여하셨다”며 “특히 동계대미사상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생활속에서 실천해 오신 것은 중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고인의 입직을 기렸다.

남동우 기자

달라이라마 · 탁날한 · 北 조불련...

세계 각국서 조문 보내

달라이 라마를 대신해 초펠라 달라이 라마 동북아 대사는 영결식에서 “스님의 입적과 함께 저희 티베트 인들은 불법을 함께하는 진실한 친구를 잃어버렸다”며 아쉬워했다.

탁날한 스님도 “유립 및 미주의 플립빌리지 선전터 사부대중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께 삼가 묵념을 올린다”고 조문을 보내왔다.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부처님 전례 불교도들의 심신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중국불교협회도 “법장 큰스님께서 중 · 한 양국 인민 및 불교계의 우정과 중 · 한 양국불교의 황금유대 관계의 공고 ·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일한불교교류협회 미야바야시 쇼켄(宮林昭彦) 회장도 “대종사는 오늘날의 세계 정세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방향성을 시사하며 인류 구제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대항했다”고 회고했다.

이 외에 마한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수상, 엽소문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장,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 · 북(북 · 남) · 해외 공동행사 해외측 준비위원회, 가이나 간타나 테라 방글라데시 마하만달 복지기구 부회장, 담바자브 캄바 라마 몽고 울란바토르 다쉬코일링 사원, 불광산종위회, 립삼를 주한캄보디아 대사, 자급토빙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캐논 찰스 김스 종교연합선도기구 전무이사 등도 조문을 보내왔다.

남동우 기자

1면에서 계속

법장 대종사 위패와 유품 등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한 바퀴 돈 뒤, 수많은 사부대중의 오열을 뒤로 한 채 출가사신 수덕사로 향했다.

한편 햇볕이 짙어지면서 내려 비치는 데도 불구하고 영결식 도중 무지개가 뜨자 참석한 신도들은 “스님이 무지개도 화했다”며 감격해 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마론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총무원장 선거 11월9일 전에 해야

총무부장이 권한대행...선관위 21일 회의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 원직으로 32대 총무원장 선출 일정과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총무원장은 총무부장 현고 스님이 대행하고 있다. 총무원법 제10조 1항에 “총무원장 유고시 총무원장 권한 대행 순위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홍보부장 순서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현고 스님은 9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무원장 선거법 제28조 1.2항에 따르면 총무원장 결위시 30일 이내 선거를 치르며, 임기(4년)는 새로 시작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무원장 선거법 제12조 2항에는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총무원장이 결위되자마자 선거일을 공고해야만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한 관계자는 “1999년 정대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될 때 ‘총무원장 선거는 결위시로부터 30일 이내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준한다면 결위된 후 30일 이내인 10월 10일 이전 총무원장 선거일이 공고되고 11월 9일 이전 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1일 회의를 열어 선거일정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총무원장은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원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선거인단은 중앙총회의원 81명과 교구별 선거인단 240명 등 총 32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조계종은 최근 금권선거 등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현행제도 보완 △선거인단 축소 △추대 △총무원장 권한 축소 등 4가지로 축소한 다음 공개토론회를 열고,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167회 임시총회에서 관련 종련총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장 스님의 갑작스런 원직으로 선거법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게 됐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등 스님은 “9월 22-3일 종단 종진스님들을 모시고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은 9월 12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29기 행자교육원을 회향하고 사미 86 · 사미니 85명 등 171명의 예비스님을 배출했다.

조계종 예비스님 171명 배출

제29기 행자교육원 회향

제29기 조계종 행자교육원(원장 성용)이 9월 12일 예비 스님 171명(사미86 · 사미니 85명)을 배출했다.

29기 행자교육원은 8월 21일 179명의 행자가 입교한 가운데 직지사에서는 23일간 경학하고 율학, 예경의식과 실수, 위의, 행해, 습의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일 실시된 5급 승가고시에는 28기 탈락자 3명을 포함 175명이 응시해서 171명이 합격했다.

이날 회향식에서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고매한 품성과 지혜를 갖추어 중생을 교화하고 사회를 밝히는 데 힘쓰는 승려로서의 위의를 갖추어 나가라”고 당부했다.

170여명의 행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한 시간도 게으르거나 후회 없는 수행자가 되어 부처님 복덕 빛내고 만중생 살려가는 여래의 법왕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배지선 기자

해동 위원장을 만나 10 · 27 법년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불교계 인사들 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법난진상규명위 이근우 위원은 “법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가 과거사위 위원에 참여해야 명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이해동 위원장은 “법난과 관련해서는 불교계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동 위원장은 또 “불교계 입장을 확인한 만큼 진상규명위 차원에서 불교계 인사 선임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유철주 기자

7년 연속 eTrust 인증 불교상품전문 마하몰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www.mahamall.co.kr)이 7년 연속 eTrust인증 우수전문몰로 선정됐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eTrust 인증제도’의 8월 심사결과 이같이 선정됐다고 9월 15일 발표했다.

eTrust인증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주문 · 결제 · 배송 프로세스, 개인정보 보호정책, 고객 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의 심사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강지연 기자

순직 총무원장 청담 · 경산 이어 세번째

법장 스님처럼 조계종 총무원장 재임중 순직한 사례는 청담 · 경산 스님이 있다. 법장 스님은 세번째.

한국불교의 정화를 주도했던 청담 스님은 비구승단인 조계종의 종권 다툼이 그치지 않았던 1971년 11월 두번째 총무원장직을 수행하던 중 입적했다.

불교정화가 마무리될 무렵 조계종 내부의 종권 다툼이 시작되자 1969년 조계종을 탈퇴하기도 했던 청담 스님은 1970년 교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무원장직을 맡았다. 도제양성 · 영역 · 포교 3대 사업을 일으켜 청정사단의 기풍을 회복하려 했지만 끝내 노령으로 쇠약해진 육신의 굴레를 벗었다. 법랍 44세였다.

조흥수 기자

종자연, 종교자유 공익소송 추진

사상 최초로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공익소송이 추진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류상태 대법관 교목실장과 대광고 재학 당시 종교자유 운동을 펼쳤던 강익석씨 등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집단 공익소송을 추진한다고 9월 14일 밝혔다.

종자연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개선의지가 부족하고 학내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제도가 미비해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송을 통해 학내 종교자유에 관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9월 30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10월 7일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서울 소재 중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인 피해당사자로서 학교 재학 중 종교자유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 마감 12월 17일

현대불교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5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6년 1월 1일자 분지 및 부타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39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분지 사장상)
 · 특별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경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만) 열쇠를 드립니다.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 大宗師

宗團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歸依三寶하옵고

지난 9월 11일 涅槃하신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大宗師의 宗團葬을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계방의 큰스님들, 각국 조문단, 정부 인사 및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 · 조전 등으로 조의를 표해주시는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울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울림을 널리 惠諒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佛紀 2549년 9월 15일

仁谷堂 法長 大宗師 追慕齋 日程

	장 소	일 시	연락처
초재	수덕사	9월 17일(음 8월 14일) 10:00	041)337-6565
2재	조계사	9월 24일(음 8월 21일) 10:00	02)732-2183,2115
3재	화계사	10월 1일(음 8월 28일) 10:00	02)902-2663
4재	법통사(배구내파관)	10월 8일(음 9월 6일) 10:00	02)3411-8103
5재	수덕사	10월 15일(음 9월 13일) 10:00	041)337-6565
6재	도선사	10월 22일(음 9월 20일) 10:00	02)993-3161~3
49재	조계사	10월 29일(음 9월 27일) 10:00	02)732-2183,2115

■ 문의 :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 02)2011-1701
 수덕사 ☎ 041)337-6565 · 조계사 ☎ 02)732-2183, 2115

◎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